

최대 격차 '여소야대'... 윤 정부 레임덕 가속화 되나

압도적 범야, 국정 주도권 확보
야권 일각선 벌써 '특검법' 언급
여당내 당정관계 재설정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는 101석 고지는 사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처럼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와 같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을 토대로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대 국회 원구성 작업에 난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

또 국회의장직 확보는 물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합법적 의사진행 방어의 강제 종결 등이 가능해져, 강력한 정부 견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에 대해 원내 1당으로서 실력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선 개표 직후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성운 전북 전주를 당선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도 희비가 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비명횡사' 등 공천 과정에서 친명 중심

으로 주류가 재편된 만큼,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반면,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패 책임론이 일면서 당이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위원장은 11일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조기 전당 대회는 물론, 대통령실을 매개로 당에 주도권을 행사해온 친윤(친윤석열) 세력에 대한 2선 후퇴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우위를 점해온 당정관계 재설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견제에 부딪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다육 거대해진 야권 앞에서, 정부 여당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치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 놓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입지 굳힌 이재명... 여야 대권 잠룡들 '희비'

이 대표, 대권가도 '청신호' 조국 등 부상...한동훈 사퇴

4·10총선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여야 대권 잠룡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총선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을 기치로 당의 승리를 주도했고, 여당 잠룡인 원희룡 후보를 꺾어 당내 입지는 물론, 정치적 무게감이 더욱 커졌다.

반면, 초라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

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법무부장관을 그만두고 구원투수로 총선에 등판했지만, 선거전 결과는 '참패'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다. 제3지대 정당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 의석 수를 확보해 22대 국회 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잠룡 대전'의 승자가 됐다.

경기 화성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도 잠재적 잠룡군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6선' 추미애, 헌정 사상 첫 女 국회의장 '급부상'

제1당 최다선 의원 선임 '관례' 5선 박지원·정동영 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며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최다선은 6선에 성공한 추미애(경기 하남갑·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지냈고, 조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장에 도전한 전력이 있다.

당내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한다.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두 당선인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 당선인의 나이가 조 의원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먼저 의장직을 수행할 것

이란 전망이 많다.

야권에서는 강경파인 추 전 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 대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김상희(4선)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돼 주목받았다.

다만 최다선이 의장을 맡는 것은 관례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해 국회에 입성하는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전 국가정보원장,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 정동영(전북 전주병)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출자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광고

본 회사는 2024년 03월 31일 정기총회의 결의로 출자금의 총액 금550,300,000원 중 금522,790,000원을 감소하여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금275,1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정기총회 결의일 현재 각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 수에 비례하여 1좌당 금10,000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유상소각하고, 출자의 총좌수를 55,030좌에서 2,751좌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2024. 04. 12부터 2024. 05. 11.까지)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자연축산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11길 30, 212호
(신안동, 충도다이아빌 상가)
대표이사 원종구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전화 062-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필요해서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